『기업경영분석』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차 례>

Ⅰ. 통계개요 ····· 1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4

Ⅲ. 통계 설계 ····· 6

Ⅳ. 자료수집 ····· 26

Ⅴ. 통계처리 및 분석 ····· 29

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34

Ⅶ. 통계기반 및 개선 ····· 44

Ⅷ. 참고문헌 ····· 46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 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기업경영분석

2.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통계 승인번호 : 제301001호(1966년 7월), 일반·가공통계

3. 통계작성방법

○ 조사대상 각 법인의 재무제표를 업종별·규모별로 분류하여 합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업종별·규모별 재무비율을 산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한국은행 /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5. 공표주기

○ 1년, 분기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과정

○ 법인세 신고법인 재무제표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 6월중
○ 기업경영분석 작성대상 확정: 7월중
○ 작성대상 기업을 업종·규모 등으로 분류: 8월중
○ 재무제표 집계 및 분석: 9~10월중
○ 분석결과 공표: 11월초

〈참고〉 기업경영분석(분기)

□ 2003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분기별로 상장기업 등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작성·공표

□ 현재 분기통계는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이하 "외감기업")가운데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작성(연간통계는 비금융 영리법인을 전수조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간통계와는 통계작성과정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통계작성과정을 거침(1/4분기 통계 기준)

○ 조사대상 업체앞 조사표 발송: 4월말
○ 조사표 회수 및 공시자료 조사: 5월중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6월초
○ 조사 결과 공표: 6월중순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시기 및 개발배경

○ 1960년대 초 자립경제수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제구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 1958년 정부의 재무제표규칙 제정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962년부터 실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편제하기 시작
○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분기별로 상장기업 등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작성·공표

□ 주요연혁

○ 1962년에 처음으로 1960년, 1961년의 2개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편제
○ 1967년 통계까지는 「기업경영분석」과 「기업원가분석」등 2권의 책자로 발간
○ 1968년 통계부터 「기업원가분석」을 「기업경영분석」에 흡수 통합하여 발간
○ 1971년 책자수록체제를 경영지표 중심에서 산업별, 업종별 중심으로 개편
○ 1972년 이후 통계편제시 제조업의 특수 분류별 경영지표(수출·내수기업, 중화학·경공업)를 추가 수록
○ 1978년 통계부터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모집단으로 변경하여 표본조사 실시
○ 2003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분기별로 상장기업 등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작성·공표
○ 2005년에는 서비스업 경영분석지표를 신규 편제하였으며, 기술수준별, 산업형태별 특수분류를 신설
○ 2007년 표본개편시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매출액 하한(직전 기준년 25억원)을 폐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법인을 모집단으로 정의
○ 2011년부터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모집단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규모(대・중소기업)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류
○ 2015년 통계부터 기업규모(대・중소기업)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분류
○ 2015년 통계부터는 분기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모집단을 상장기업에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으로 확대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목적

○ 국내기업의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민간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기업경영분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분석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경영자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정부기관의 산업정책수립,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용역·구매입찰 시 업체평가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사항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통계청)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업력별, 사업형태별 기업의 구조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연간통계

*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통계청)
활용자료	법인세 자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보험자료,근로·일용소득지급명세서
포괄범위	법인세 납부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단, 1~5월 결산기업, 비영리법인, 임업, 수도업,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제외)	법인세 납부 대상 영리법인 (단, 비영리법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자가소비 및 국제기관 등 제외)
공표주기	매년(작성기준 익년 11월)	매년(작성기준 익년 12월)
주요지표	재무제표,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 자본, 기업규모, 업력, 종사자 등
기업분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정부부처) 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분석자료, 경영평가 및 입찰 등을 위한 기초자료

○ (일반기업) 내부통제, 업무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조지표

○ (학계·연구기관) 정책보고서, 기업경영 분석자료 작성 등에 활용

○ (신용평가기관) 기업평가

3. 이용자 의견수렴

□ 한국은행 작성 통계 이용자조사(연 1회)

○ 기업경영분석을 포함한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행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문조사

- 2018년의 경우 11월중 3주간에 걸쳐 총 776명이 응답
- 2018년 이용자조사 설문지<‘첨부1’ 참조>

○ 조사 결과, 기업경영분석의 경우 평균 3.8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여 2017년(4.0점)에 비해 소폭 하락

* 5점 척도[5(매우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 불만족)]

-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편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시계열 단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Ⅲ. 통계 설계

1.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대상(항목),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기업의 경영규모, 수익성, 활동성, 재무구조, 생산성 등을 분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산업분류별 성장성에 관한 지표, 손익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회전율, 생산성에 관한 지표, 부가가치의 구성 등을 작성

○ 작성대상 연도에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1년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통계작성대상(연간 기업경영분석 기준)
재무제표
ㅇ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ㅇ 제조원가명세서(Statement of Cost of Goods Manufactured) ㅇ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ㅇ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주요 재무비율
ㅇ 성장성에 관한 지표(Indicators concerning Growth) ㅇ 손익에 관계비율(Relationship Ratios of Income and Expenses) ㅇ 자산・자본의 관계비율(Relationship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ㅇ 자산・자본의 회전율(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ㅇ 생산성에 관한 지표(Indicators concerning Productivity) ㅇ 부가가치의 구성(Composition of Gross Value Added)

□ 필요자료의 시의성, 수집가능성

○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 중 비금융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 다만 작성대상으로 부적합한 1~5월 결산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지주회사, 통계편제 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법인은 제외하여 통계를 작성

* 금융 및 보험업(K), 임업(A02), 수도사업(E36), 연구개발업(M70),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지주회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O),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협회 및 단체(S9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T)

- 통계가 작성대상 연도 1년 동안의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 법인세 자료의 내역 및 입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음

기업경영분석 작성항목

구분	작성항목
성장성에 관한 지표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재고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손익의 관계비율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기업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본금세전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원가 대 매출액, 변동비 대 매출액, 고정비 대 매출액,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인건비 대 매출액,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재료비 대 매출액,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EBIT 대 매출액, EBITDA 대 매출액, 감가상각률, 금융비용 대 부채, 차입금평균이자율, 금융비용 대 총비용, 금융비용 대 매출액,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이자보상비율, 순이자보상비율, 손익분기점률, 사내유보율, 배당률, 배당성향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비율, 비유동비율, 비유동장기적합률,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비유동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대 매출액,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자산・자본의 회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경영자산회전율, 비유동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상(제)품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생산성에 관한 지표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의 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 수집자료의 포괄성 검토

○ (연간)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영리법인 기업의 규모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

-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첨부된 조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를 활용

○ (분기) 외감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 동 모집단을 기초로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표본을 설계하므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모집단을 대표

- 상장법인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장법인은 모집단에서 표본업체를 선정

□ 수집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 (연간) 법인세 신고 자료는 기업에서 작성하는 재무항목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 기업의 규모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타당하며 과세자료로서 신뢰성에 무리가 없음

○ (분기) 조사대상업체 중 상장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 공시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은 자계기입방식을 통해 입수한 기초자료를 활용

○ 모든 통계자료는 입수 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를 통해 전수로 검토를 실시하며, 누락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업체 담당자를 접촉하여 정보를 입수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완, 이후 부문 담당 조사역 및 책임자가 2차 내검을 수행하므로 수집자료는 신뢰성 있으며 타당함

□ 수집자료의 문제점 및 한계점

○ 연간 및 분기 기업경영분석 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가 상이하며 분기결산을 실시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두 지표를 합쳐 시계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조사대상 기업이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 단절 발생

- 분석대상 기간의 재무자료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결산월 변경, 상장폐지, 관리대상기업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분석대상 기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와 시계열상의 단층이 존재

3. 주요 개념 및 용어

□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1.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종류를,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 및 자본항목은 자본의 조달구조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적 융통성(financial flexibili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자산 (Total assets)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고자산, 토지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자산과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및 무형의 권리가 포함된다. 자산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111. 유동자산 (Current assets)

유동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통상 1년) 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할 의도 또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 매출채권, 상(제)품 등과 같이 상거래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비순환적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은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1111. 당좌자산 (Quick assets)

당좌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다른 자산의 취득 또는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당좌자산으로 구분된다.

1112. 재고자산 (Inventories)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과 선박·건설업의 미완성공사 등이 포함된다.

112. 비유동자산 (Non-current assets)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이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나뉜다.

1121. 투자자산 (Investments)

투자자산은 장기에 걸쳐 이자 및 배당수익을 얻거나 다른 기업을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에는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 포함된다.

1122.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한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액손실 누계액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된다.

112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이에는 개발비,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1124. 기타비유동자산 (Other non-current assets)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12. 부채 및 자본 (Total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진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이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12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부채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등을 가리킨다.

122.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비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로 회사채, 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부채 등이 있다.

123. 자본 (Stockholders' equity)

자본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2)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회계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21. 매출액 (Sales)

매출액은 상(제)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잔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에누리액 및 매출할인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한다. 상(제)품의 판매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과 거래원가 및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용역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 원가 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2.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매출원가는 매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소비액 및 기타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판매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제조업은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각각 산출한다.

23. 매출총손익 (Gross profit or loss)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며,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출총손실로 기록한다.

241. 판매비와 관리비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이른다.

24. 영업손익 (Operating income or loss)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으로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51.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활동 또는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상적 수익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파생금융상품거래·평가이익,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지분법이익 등을 들 수 있다.

252.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파생금융상품거래·평가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등이 해당된다.

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Income or loss before income taxes)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기업의 경상거래, 즉 영업거래와 영업외거래에 의하여 발생

된 손익으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61.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26. 당기순손익 (Net income or loss)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 분석지표 해설

(1) 성장성에 관한 지표 (Indicators concerning growth)

당해연도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규모와 기업활동의 성과가 전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501. 총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total assets)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100$$

502. 유형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tangible assets)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 파악에 활용된다.

$$\text{유형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유형자산}}{\text{전기말유형자산}} \times 100 - 100$$

503. 유동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current assets)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는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유동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유동자산}}{\text{전기말유동자산}} \times 100 - 100$$

504. 재고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inventories)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text{재고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재고자산}}{\text{전기말재고자산}} \times 100 - 100$$

505. 자기자본증가율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증가율} = \frac{\text{당기말자기자본}}{\text{전기말자기자본}} \times 100 - 100$$

506. 매출액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100$$

(2) 손익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of Income and Expenses)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투자된 자본 또는 자산, 매출수준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영업성과를 요인별로 분석·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된다. 수익성 분석은 자산이익률, 매출액이익률, 매출액대비원가율 등의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로 저량(stock) 개념의 재무상태표 항목과 유량(flow) 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비율의 경우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601. 총자산세전순이익률 (Income before income taxes to total assets)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하 세전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측정한다.

$$\text{총자산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총자산(평균)}} \times 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지표를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총자산세전순이익률＝매출액세전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

$$= \frac{\text{세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평균)}}$$

예를 들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낮았다면 판매마진은 개선된 반면, 기업의 판매활동은 부진하였음을 의미한다.

602. 총자산순이익률 (Net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의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활용된다.

$$\text{총자산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평균)}} \times 100$$

603. 기업세전순이익률 (Interest expenses and income before income taxes to total assets)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전순이익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경영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text{기업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text{총자산(평균)}} \times 100$$

604. 기업순이익률 (Interest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의

종합적인 최종 성과를 나타낸다.

$$\text{기업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이자비용}}{\text{총자산(평균)}} \times 100$$

605.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Income before income taxes to stockholders' equity)

세전순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할 때 주로 이용하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자기자본(평균)}} \times 100$$

606. 자기자본순이익률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ROE(Return on Equity)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평균)}} \times 100$$

607. 자본금세전순이익률 (Income before income taxes to capital stock)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세전순이익의 비율이다. 앞에서 설명한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외에도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출자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확한 이익률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자본금세전순이익률은 이에 대한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자본금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자본금(평균)}} \times 100$$

608. 자본금순이익률 (Net income to capital stock)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배당능력 판단 등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에 참고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text{자본금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본금(평균)}} \times 100$$

609. 매출액세전순이익률 (Income before income taxes to sales)

경영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text{매출액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610. 매출액순이익률 (Net income to sales)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611. 매출액영업이익률 (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612. 매출원가 대 매출액 (Cost of goods sold to sales)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중으로서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매출원가대매출액} = \frac{\text{매출원가}}{\text{매출액}} \times 100$$

613. 변동비 대 매출액 (Variable costs to sales)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많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고정설비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율은 적정조업도 및 투자설비규모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은 변동비로 분류된다.

$$\text{변동비대매출액}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times 100$$

* 변동비 = 총비용**-고정비

** 총비용 =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614. 고정비 대 매출액 (Fixed costs to sales)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황시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지출은 줄지 않아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자비용 등이 고정비로 분류된다.

$$\text{고정비대매출액} = \frac{\text{고정비}^{*}}{\text{매출액}} \times 100$$

* 고정비 = 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노무비의 1/2+제조경비-외주가공비+재고조정중의 고정비**)

** 재고조정중의 고정비 = (매출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dfrac{(\text{노무비의}\frac{1}{2} + \text{제조경비} - \text{외주가공비})}{\text{당기총제조비용}}$

615.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o sales)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text{연구개발비대매출액} = \frac{\text{연구개발비}^{*}}{\text{매출액}} \times 100$$

* 연구개발비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616. 인건비 대 매출액 (Employment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노무관리 및 인건비 결정에 이용된다.

$$\text{인건비대매출액} = \frac{\text{인건비}^{*}}{\text{매출액}} \times 100$$

617.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Employment costs to total operating costs)

영업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인건비 대 매출액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인건비대총영업비용} = \frac{\text{인건비}}{\text{영업총비용}^{*}} \times 100$$

* 영업총비용 = 당기총제조비용+판매비와 관리비

618. 재료비 대 매출액 (Material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원재료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재료비대매출액} = \frac{\text{재료비}}{\text{매출액}} \times 100$$

619.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Material costs to total operating costs)

영업총비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료비 대 매출액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재료비대영업총비용} = \frac{\text{재료비}}{\text{영업총비용}} \times 100$$

620.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Net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translation to sales)

환율 변화에 따라 발생한 순손익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text{순외환손익대매출액} = \frac{\text{외환차익} + \text{외화환산이익} - \text{외환차손} - \text{외화환산손실}}{\text{매출액}} \times 100$$

621. EBIT 대 매출액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to sales)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타인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해 타인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EBIT는 세전순이익에 금융비용을 더해 산출되므로 자금조달방법에 관계없이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다.

$$EBIT\text{대매출액} = \frac{\text{세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622. EBITDA 대 매출액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 EBIT와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용하게 쓰인다.

$$EBITDA\text{대매출액} = \frac{\text{세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 + \text{감가상각비} + \text{무형자산상각비}}{\text{매출액}} \times 100$$

623.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ratio)

비상각자산, 즉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text{감가상각률} = \frac{\text{감가상각비}}{[\text{유형자산} + \text{무형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토지})]\text{의평균} + \text{감가상각비}} \times 100$$

624. 금융비용 대 부채 (Interest expenses to liabilities)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 등의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부채가 있다. 금융비용 대 부채 비율은 이러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text{금융비용대부채} = \frac{\text{이자비용}}{\text{부채(평균)}} \times 100$$

625. 차입금평균이자율 (Interest expenses to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로서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인 평균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과 다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타인자본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text{차입금평균이자율} = \frac{\text{이자비용}}{\text{[회사채+장단기차입금]의평균}} \times 100$$

626. 금융비용 대 총비용 (Interest expenses to total expenses)

총비용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입금의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text{금융비용대총비용} = \frac{\text{이자비용}}{\text{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 \times 100$$

627. 금융비용 대 매출액(금융비용부담률) (Interest expenses to sales)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경영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비용에는 대출이자, 회사채이자 등이 포함되며 금융비용 대 매출액은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높고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낮다.

$$\text{금융비용대매출액} = \frac{\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 \frac{\text{이자비용}}{\text{차입금(평균)}} \times \frac{\text{차입금(평균)}}{\text{총자산(평균)}} \times \frac{\text{총자산(평균)}}{\text{매출액}} \times 100$$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매출 수준과 관계없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불황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호경기에는 재무레버리지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에 의해서 차입금 비중이 클 경우 주당이익의 증가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 및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외부차입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628.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Net interest expenses to sales)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 즉 금융거래로 지급한 순이자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다.

$$\text{순금융비용대매출액} = \frac{\text{이자비용} - \text{이자수익}}{\text{매출액}} \times 100$$

629.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의 창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630. 순이자보상비율 (Net interest coverage ratio)

순이자보상비율은 이자보상비율과 같이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데 주로 이용되며, 이자지급액의 경우 이자수익이 제외된 순이자비용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자보상비율과 차이가 있다.

$$\text{순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 \text{이자수익}} \times 100$$

631. 손익분기점률 (Break-even point ratio)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ratio)이란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총영업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매출량 또는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분기점률이란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과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산성이 양호하고 높을수록 채산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손익분기점분석이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 조업도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입, 비용 및 이익의 상호변동관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매출 및 이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손익분기점분석은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text{손익분기점률} = \frac{\text{손익분기점에서의매출액}}{\text{매출액}} \times 100$$

$$\text{손익분기점에서의매출액} = \frac{\text{고정비} - \text{영업외수익}}{1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times 100$$

632. 사내유보율 (Accumulated earnings ratio)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량(flow) 개념의 지표이다.

$$\text{사내유보율} = \frac{\text{사내유보}^{*}}{\text{처분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times 100$$

* 사내유보 =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33. 배당률 (Dividends to capital stock)

주식발행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의 비율로서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을 나타낸다.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text{배당률} = \frac{\text{배당금}}{\text{자본금(평균)}} \times 100$$

634. 배당성향 (Dividends to net income)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어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외배당률(payout ratio)이라고도 한다. 배당률만으로는 배당지급능력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률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배당성향} = \frac{\text{배당금}}{\text{당기순이익}} \times 100$$

(3)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은 재무상태표 각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태비율로서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 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701. 자기자본비율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 총자본 = 자기자본+타인자본
(자산) (자본) (부채)

702. 유동비율 (Current ratio)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703. 당좌비율 (Quick ratio)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유동자산 중 현금화 속도가 늦거나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큰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산성시험비율(acid test ratio) 또는 신속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기업의 유동성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text{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704. 현금비율 (Cash ratio)

유동부채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로서 기업의 초단기 채무지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07년부터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단기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text{현금비율} = \frac{\text{현금 및 현금성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705. 비유동비율 (Non-current ratio)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비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착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상환기한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text{비유동비율} = \frac{\text{비유동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706. 비유동장기적합률 (Non-current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non-current liabilities)

비유동장기적합률은 자기자본 및 비유동부채가 비유동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투하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통상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나, 실제로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을 모두 자기자본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단기부채보다는 비교적 상환기간이 긴 장기부채로 조달하게 되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text{비유동장기적합률} = \frac{\text{비유동자산}}{\text{자기자본} + \text{비유동부채}} \times 100$$

707. 부채비율 (Debt ratio)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 + \text{비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708. 유동부채비율 (Current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이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본구성의 안정성은 물론 재무유동성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text{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709. 비유동부채비율 (Non-current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비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이다.

$$\text{비유동부채비율} = \frac{\text{비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710. 차입금의존도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text{차입금의존도} = \frac{\text{장단기차입금} + \text{회사채}}{\text{총자본}} \times 100$$

711. 차입금 대 매출액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sales)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입금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준다.

$$\text{차입금대매출액} = \frac{\text{차입금(평균)}}{\text{매출액}} \times 100$$

712.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Receivables to payables)

기업간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비시킨 것으로 기업의 자금관리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매출채권의 과다한 보유는 오히려 자금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text{매출채권대매입채무} = \frac{\text{매출채권}}{\text{매입채무}} \times 100$$

713.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Net working capital to total assets)

기업 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높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순운전자본대총자본} = \frac{\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4) 자산·자본의 회전율 (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자산·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활동성분석이라고도 한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율을 측정하는 기본항목은 매출액이며, 기업의 활동성은 매출액과 각 자산·자본 항목에 대한 회전배수로 측정된다.

801. 총자산회전율 (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총자산=총자본)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평균)}} \times 100$$

802. 자기자본회전율 (Stockholders' equity turnover)

자기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평균)}}$$

803. 자본금회전율 (Capital stock turnover)

납입자본금의 회전속도, 즉 자본금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자본금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자본금(평균)}}$$

804. 경영자산회전율 (Operating assets turnover)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활용되고 있는 경영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이다.

$$\text{경영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투자자산})]\text{의평균}}$$

805. 비유동자산회전율 (Non-current assets turnover)

비유동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며, 유동성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text{비유동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비유동자산(평균)}}$$

806. 유형자산회전율 (Tangible assets turnover)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이 비율이 높으면 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text{유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유형자산(평균)}}$$

807. 재고자산회전율 (Inventories turnover)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고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기업이나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후입선출법(LIFO)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생산기간이 단축되어 재공품이 감소하였는지, 기업의 재고보유방침이 바뀌었는지,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평균)}}$$

808. 상(제)품회전율 (Merchandise turnover)

상(제)품에 투하된 자금의 회전속도, 즉 상품이 일정기간 동안 몇 번 당좌자산으로 전환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상(제)품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상(제)품(평균)}}$$

809. 매출채권회전율 (Receivables turnover)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의 역수를 취하여 365일을 곱하면 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판매자금이 매출채권에 오래 묶여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매출채권회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text{매출채권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평균)}}$$

810. 매입채무회전율 (Payables turnover)

매입채무의 지급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의 부채 중에서도 특히 매입채무가 원활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매입채무회전율이 높을수록 결제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나 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어 신용 매입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회전율도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text{매입채무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입채무(평균)}}$$

(5) 생산성에 관한 지표 (Indicators concerning Productivity)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합리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아울러 근래에는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는 부가가치 생산성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01. 총자본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 측정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text{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평균)}} \times 100$$

* 부가가치 = 인건비+영업잉여**+세금과 공과+감가상각비+이자비용

** 영업잉여 = 영업손익+대손상각비-이자비용

902. 설비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angible assets)

설비투자효율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며,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설비투자효율×노동장비율=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도 이용된다.

$$\text{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text{의 평균}} \times 100$$

903. 기계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투자효율은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text{기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기계장치(평균)}} \times 100$$

904. 부가가치율 (Gross value-added to output)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중의 산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산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률로도 불린다. 부가가치액은 산출액에서 다른 기업이 생산한 중간투입물인 재료비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산출액}^{*}} \times 100$$

* 산출액 = 매출액+당기총제조비용-매출원가-외주가공비

905. 노동소득분배율 (Employment costs to gross value-added at factor cost)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낸다.

$$\text{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인건비}}{\text{요소비용부가가치}^{*}} \times 100$$

* 요소비용 부가가치 = 영업잉여+금융비용+인건비

(6) 부가가치의 구성 (Composition of Gross Value-Added)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익을 순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귀속되는 이익까지 그 범위를 넓혀 측정한 개념이다. 이런 부가가치는 창출(value added created) 측면과 분배(value added applied)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기업경영분석에서는 분배 측면의 영업잉여(영업손익+대손상각비-금융비용),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 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001. 영업잉여 (Operating surplus)

영업손익에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금융비용을 차감하여 이를 구분 명기하는 것은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002. 인건비 (Employment costs)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을 인건비로 한다.

1003. 금융비용 (Interest expenses)

차입금이나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을 금융비용으로 표기한다.

1004. 조세공과 (Taxes and dues)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 세금과 공과를 말한다.

1005.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판매관리부문에서 발생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와 제조부문의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등에 대한 국제기준 또는 국내 기준

○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등은 국내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름

4. 적용 분류체계

□ 통계작성의 적용분류체계

○ (업종별) :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통계청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통계 시계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함.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의 업종으로 분류

- 분기통계는「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9개 업종(중분류), 비제조업은 8개 업종(대분류)으로 편제

○ (규모별) :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자산총액, 평균매출액 등)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범위를 설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

5. 통계개편의 적절성

□ 변경(개편)의 필요성

○ 업종분류 기준인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에 따라 본 통계도 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

□ 최근 통계작성방법 변경

○ 2017년 기업경영분석통계의 업종분류는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시행 2017.7.1) 및 지난 업종분류 조정 이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

- 기업경영분석통계 시계열의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 통계도 새 업종분류체계에 따라 소급하여 새로 작성
- 업종분류의 조정은 실무작업으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전문가 자문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담당부서(담당자)의 내부 검토 및 결재를 통해 진행
- 최종적으로 업종분류 조정내역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청 앞 승인 신청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변경 승인 신청(기업통계팀-589, 2018.10.4.))

□ 통계작성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청 앞 승인 신청 이력(최근 5년)

○ 2015.6.17. (분기)표본설계, 작성항목, 결과표 변경

○ 2015.10.5. 분위별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 관련 변경

○ 2016.7.27. 모집단 및 표본추출률의 변경으로 작성대상업체수 변경

○ 2016.9.22. 기업규모 분류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 2017.7.20. 모집단(조사대상규모) 및 공표범위(지역) 변경

○ 2018.7.24. 최신 모집단 적용 및 조사규모 조정

○ 2018.10.10. 분류체계 및 결과표 변경

업종분류체계 조정내역

조정전 업종		조정후 업종		비고
C111	알콜음료	C111	알코올음료	외래어표기법 개정 반영
C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C112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외래어표기법 개정 반영
C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C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업종분류 이동
C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C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업종분류 이동 업종포괄범위 조정
C204	기타 화학제품	C204	기타 화학제품	업종포괄범위 조정
C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C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하위업종명 변경
C302,3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C302-4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업종분류 신설·통합
-	-	C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업종분류 신설
D352,3	가스,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2,3	연료용 가스,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위업종명 변경
E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하위 업종분류 세분조정
G4711-9	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	-	업종분류 폐지
-	-	G4711,3	대형종합소매업 및 면세점(백화점제외)	업종분류 신설·통합
-	-	G4712,9	기타 종합소매업	업종분류 신설·통합
I55	숙박업	I55	숙박업	업종포괄범위 조정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	업종명 변경
J61	통신업	J61	우편 및 통신업	하위업종명 변경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부동산업	업종포괄범위 조정
L68	부동산업	-	-	업종분류 폐지
M714, 7153	기타 전문서비스업	M714, 7153, 716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분류 신설·통합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업종포괄범위 조정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업종분류 이동 업종포괄범위 조정
P	교육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업종포괄범위 조정
S95	수리업	S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업종포괄범위 조정

Ⅳ. 자료수집

1. 수집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작성통계명	자료명	작성 주기	작성대상(기관)	작성 형태	입수시기
(연간)기업경영분석	법인세자료	연간	국세청(법인세과)	보고	익년 7월
(분기)기업경영분석	전자공시자료 (상장기업 등)	분기	금융감독원	보고	익분기 재무제표공시일
	조사표 (비상장기업)	분기	각 기업체	조사	

□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

○ 법인세 자료는 국내의 모든 영리법인 기업체를 포괄하고, 기업체에서 작성하는 재무항목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영리법인기업체의 규모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함

○ 다만, 작성대상연도 매년 조사대상 기업이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 단절 발생

- 분석대상 기간의 재무자료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결산월 변경, 상장폐지, 관리대상기업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분석대상 기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와 시계열 상의 단층이 존재

※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 결과는 “Ⅲ. 통계설계 -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참조

2. 자료수집체계

□ 자료수집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 따라 문서로 국세청 법인세과에 법인세 자료를 요청하고 국세청 전용망을 통해 수신

- 분기통계는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DART)를 기초로 조사하며, 비상장기업은 자계기입방식의 조사표를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

□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 근거함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요인 및 대책

○ 현재 연간 기업경영분석은 법인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므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없으나, 분기통계의 경우 분·반기 결산을 실시하지 않는 법인들은 조사표를 발송하더라도 조사자료를 얻기 어려우며, 업체별 담당자의 관심도가 낮은 경우 조사표의 회수율이 저조

- (분기) 조사에 처음 포함되는 법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인들은 직접 방문하여 통계작성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이후 회신 여부에 따라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

3. 수집자료 처리

□ 수집자료의 처리과정

○ (편제대상 확정)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

* 분기통계는 직전년도말 현재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확정하고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표본업체를 선정

○ (업종 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시계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하되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

- 수집된 법인세 신고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업종코드별로 분류하고 통계를 작성

○ (규모 분류)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자산총액, 평균매출액 등)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

○ (오류검토) 입수된 자료는 조사원을 통해 1차적으로 오류 검증을 하고, 이후 집계된 자료는 2차적으로 담당 조사역과 책임자가 검토하는 등 이중으로 확인

○ (시계열 분석) 업종별·규모별 증감 등을 검토하여 유형별 증감 사유 등을 파악

□ 미수집 자료의 처리방법

○ 기업경영분석(연간) 작성에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자료의 미수집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분기 통계는 표본기업 중 일부 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응답기업의 등락률을 활용하여 比 대체(Ratio Imputation) 처리하고 있음

Ⅴ.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 수집자료의 단계별 가공과정

○ 기업경영분석 대상 기업체 모집단 구축

-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에서 비영리법인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기업경영분석 대상 확정

○ 업종 분류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의 업종 분류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자산총액, 평균매출액 등)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범위를 설정

○ 공기업 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국민계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분류되지 않는 공기업은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

○ 특수분류기준

- 제조업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기술수준별 분류, 산업형태별 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 등으로 분류

(가)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① 중화학공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② 경공업 :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나) 기술수준별 분류

① 첨단기술 업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

② 고기술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항공기제외)(C312,9),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③ 중기술 업종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④ 저기술 업종 :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제품(의복제외)(C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다) 산업형태별 분류

①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복제외)(C1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②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③ 생활관련형 산업 :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라) 정보통신기술산업

① 정보통신기기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C272), 절연선 및 케이블(C283)

②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기술 관련 도·소매업, 정보통신기술 관련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우편 및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③ 정보통신기술산업 :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통신서비스 전 업종

□ 주요통계의 목록

<2017년 기업경영분석 목차>

Ⅰ. 201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1. 개황
2. 성장성
3. 수익성
4. 안정성
Ⅱ. 조사방법과 분석지표 해설
1. 조사방법 해설
2.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해설
Ⅲ. 통계표
1. 통계이용시 유의사항
2.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
Ⅳ. 부록
1. 현금흐름표
2.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통계
3. 주요국의 경영분석지표
4.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2017

□ 주요통계 결과(2017년 기업경영분석)

◆ 2017년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모두 전년보다 개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전년대비 상승 (2.6% → 9.2%)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 전년대비 상승 (5.4% → 6.1%)
— (안정성) 부채비율 : 전년말대비 하락 (121.2% → 114.1%)

1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2.6% → 9.2%), 총자산증가율(6.3% → 7.6%) 및 유형자산증가율(4.4% → 6.7%) 모두 전년보다 상승

주요 성장성지표

(전년대비, %)

	2015	(제조업)	2016	(제조업)	2017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0.3	-2.8	2.6	-0.6	9.2	9.0
총자산증가율	5.5	4.0	6.3	5.1	7.6	6.5
유형자산증가율	6.5	5.3	4.4	4.4	6.7	7.1

2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5.4% → 6.1%)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4.9% → 6.1%)도 영업이익 호조 및 영업외수지 개선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상승

주요 수익성지표

(%)

	2015	(제조업)	2016	(제조업)	2017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A)	4.7	5.2	5.4	6.0	6.1	7.6
영업외수지/매출액(B)	-0.3	-0.2	-0.5	0.1	0.0	0.3
매출액세전순이익률 (A + B)	4.4	5.0	4.9	6.1	6.1	7.9

3 안정성

- 부채비율(121.2% → 114.1%) 및 차입금의존도(29.8% → 28.8%) 모두 전년보다 하락

4 기업규모별

- (매출액증가율) 대기업(-1.3% → 7.9%)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중소기업(8.6% → 11.0%)은 전년보다 상승
-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6.5% → 7.6%) 및 중소기업(3.9% → 4.0%) 모두 전년보다 상승

주요 안정성지표

(%)

	2015	(제조업)	2016	(제조업)	2017	(제조업)
부 채 비 율	128.4	85.3	121.2	80.2	114.1	77.0
차 입 금 의 존 도	31.4	24.9	29.8	23.7	28.8	22.7

- (부채비율) 대기업(100.1% → 95.5%) 및 중소기업(181.3% → 163.2%) 모두 전년보다 하락

기업규모별 주요 경영분석지표

(%)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 산 업	0.3	2.6	9.2	4.7	5.4	6.1	128.4	121.2	114.1
대 기 업	-4.1	-1.3	7.9	5.5	6.5	7.6	107.9	100.1	95.5
중 소 기 업	7.6	8.6	11.0	3.6	3.9	4.0	187.7	181.3	163.2

2. 결과의 적절성

□ 최종 산출통계에 대한 검증

○ 기업경영분석은 기본적으로 비금융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통계로 세분화된 분류수준에서도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각종 지표를 산출하는 산식에 의해 산출되므로 타 관련통계나 지표 등과의 교차검증 등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음

- 지표를 산출하는 산식도 기업경영분석통계 공표 시 제공하고 있음

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업종은 분류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관련지표를 공표하며, 기업규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 업종분류

-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통계청의「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통계 시계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으로 업종을 세분화(대, 중, 소 분류)
-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의 업종으로 분류
- 분기통계는 제조업은 중분류, 나머지 업종은 대분류로 구분하여 공표

○ 기업규모(종합/대기업/중소기업)

- 기업경영분석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정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

□ **기업경영분석은 가공통계인 데다 표본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표집오차(CV) 등과는 무관하며, 그 밖의 통계 공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Ⅴ.통계처리 및 분석-2.결과의 적절성" 참조**

□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상세 내용은 "Ⅴ.통계처리 및 분석-1.통계작성 결과" 참조)**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1)]

(%)

	2015	2016	2017
1. 성장성 관련지표			
매출액증가율[2)]	0.3	2.6	9.2
	(-2.8)	(-0.6)	(9.0)
총자산증가율[3)]	5.5	6.3	7.6
	(4.0)	(5.1)	(6.5)
유형자산증가율[4)]	6.5	4.4	6.7
	(5.3)	(4.4)	(7.1)
2.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5)]	4.7	5.4	6.1
	(5.2)	(6.0)	(7.6)
매출액세전순이익률[6)]	4.4	4.9	6.1
	(5.0)	(6.1)	(7.9)
이자보상비율[7)]	359.2	442.1	537.4
	(539.8)	(640.8)	(914.3)
금융비용부담률[8)]	1.3	1.2	1.1
	(1.0)	(1.0)	(0.9)
3. 안정성 관련지표			
부채비율[9)]	128.4	121.2	114.1
	(85.3)	(80.2)	(77.0)
차입금의존도[10)]	31.4	29.8	28.8
	(24.9)	(23.7)	(22.7)
자기자본비율[11)]	43.8	45.2	46.7
	(54.0)	(55.5)	(56.5)

주: 1) ( ) 내는 제조업 기준
2)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3)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4) (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 유형자산)×100-100
5) (영업이익/매출액)×100
6) (세전순이익/매출액)×100
7) (영업이익/이자비용)×100
8) (이자비용/매출액)×100
9) (부채/자기자본)×100
10) [(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11) (자기자본/총자본)×100

□ 이용시 유의사항

○ 성장률 관련지표는 2개년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각 항목의 금액 수치와 비교한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 손익의 관계비율 중에서 사내유보율, 배당률, 배당성향지표는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업체는 제외)으로 하여 관련 비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해당 항목과 연계하여 비교할 수 없음

○ 기업의 경영성과는 자산·부채·자본을 운용한 결과이므로 지표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재무상태표 다음 항목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를 사용함

- 손익관계비율 산출시의 자산·부채·자본항목
- 자산·자본의 회전율 산출시의 자산·부채·자본항목
- 생산성지표 산출시의 자산항목

○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을 인건비로 함

○ 분기 기업경영분석은 상장기업과 주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분석하므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간 기업경영분석과 포괄범위가 서로 다름

○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와는 포괄범위*가 달라 기업체 수에서 차이가 남

* 통계청은 금융 및 비금융 영리법인 기준

□ 성인지(성별 관련)와 관련된 통계 항목은 없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시점(기간) 및 공표시기

○ 연간 통계

- 통계작성시점: 연간
- 공표시기: 익년 11월초(2019년은 11.5일)

○ 분기 통계

- 통계작성시점: 분기
- 공표시기: 익분기 마지막월 중순(4/4분기는 미공표)

□ 기간 단축 가능성

○ 연간 기업경영분석은 자료수집 시기 등을 감안하면 기간 단축은 어려우나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속보' 통계를 익년 6월초에 작성 공표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공개 및 공개 방법

○ 공표일정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공표일정(http://ecos.bok.or.kr/)
- KOSIS > 서비스·민원안내 > 국가통계공표일정(http://kosis.kr)

○ 보도자료 공표:

- 연간 : 2019.11.6일 언론(조간)에 공표
- 분기 : 2019.6.18일, 9.17일, 12.17일에 각각 공표
- ECOS서비스 : 공표와 동시(Home > ECOS안내 > 보도자료)
- KOSIS서비스 : 공표와 동시(ECOS와 연동) (Home > 보도자료)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가 일치함

통계구분	2018년중 통계공표 일정 계획	2018년중 실제 공표시기
연간 기업경영분석 속보	5.28일 12:00	5.28일 12:00
연간 기업경영분석 확정	10.31일 12:00	10.31일 12:00
1/4분기 기업경영분석	6.14일 12:00	6.14일 12:00
2/4분기 기업경영분석	9.13일 12:00	9.13일 12:00
3/4분기 기업경영분석	12.13일 12:00	12.13일 12:00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등의 적용

○ 기업경영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 업종분류 기준 등은 매년 작성되는 통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다만,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고 있는 만큼 동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종을 재분류 조정하고 있음

○ 2017년 기업경영분석통계의 업종분류는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 2017.1.13일, 시행 2017.7.1일)와 지난 업종분류 조정 이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함

- 신·구업종의 2016년 기업경영분석 지표를 작성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조정업종에서 신·구업종 간 재무비율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분석통계 시계열의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 통계도 새 업종분류체계에 따라 소급하여 작성

○ 업종분류 조정내역(2017년)은 "Ⅲ. 통계설계 - 5. 통계개편의 적절성" 참조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기업경영분석통계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작성되므로 동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이전 시계열과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 관련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요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통계에서 과거 계열과의 단절이 발생하게 됨

□ 시계열 단절의 발생-기업규모 구분 기준의 변경

○ 2015년초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경영분석은 동 법이 정하는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정보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

-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는 2015년과 그 이전 시계열 간에 단절이 발생

□ 시계열 단절의 발생-업종 분류기준 변경

○ 2015년~2017년 기업경영분석통계(연간)의 업종분류는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종전 업종분류 조정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자료 이용시 고려사항)

- 업종분류 조정에 따라 일부 업종은 포괄범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배열순서나 명칭도 조정
- 시계열의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 통계도 새로운 업종분류 체계에 따라 소급하여 작성

○ 2018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분기) 표본추출시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체계를 이용함에 따라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가 변경
(자료 이용시 고려사항)

- 전문, 과학기술,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업종(M&N)의 경우 부동산업이 제외되고 임대업이 추가됨에 따라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비교 시 유의

□ 시계열 단절의 발생원인 설명과 자료이용 방법을 제공

○ 공표시 보도자료에 별도로 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시행에 따른 업종분류의 조정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이용시 유의하도록 안내

3-3. 국가간 비교성

□ 외국의 기업경영분석 작성예

국가	명칭	작성기관	작성주기	조사방법	포괄범위
미국	Quarterly Financial Report	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상무부)	분기	표본조사	제조업
일본	法人企業統計	일본 재무성	연간/분기	표본조사	금융보험업 포함
독일	Ratios from Financial statements of German enterprises	Deutsche Bundesbank (독일연방은행)	연간	표본조사	

□ 외국 통계 이용시 고려사항

○ 국가별로 기업경영 분석지표의 작성 범위, 대상 및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국가별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기업경영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1)]

(%)

	2015	2016	2017	미국 (2017)	일본[2)] (2017)
1. 성장성 관련지표					
매출액증가율[3)]	0.3	2.6	9.2	-	6.1
	(-2.8)	(-0.6)	(9.0)	(4.8)	(2.7)
총자산증가율[4)]	5.5	6.3	7.6	-	6.8
	(4.0)	(5.1)	(6.5)	(5.5)	(4.6)
유형자산증가율[5)]	6.5	4.4	6.7	-	3.2
	(5.3)	(4.4)	(7.1)	(4.2)	(3.8)
2.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6)]	4.7	5.4	6.1	-	4.4
	(5.2)	(6.0)	(7.6)	(8.0)	(5.1)
매출액세전순이익률[7)]	4.4	4.9	6.1	-	5.2
	(5.0)	(6.1)	(7.9)	(10.4)	(6.6)
이자보상비율[8)]	359.2	442.1	537.4	-	1,087.9
	(539.8)	(640.8)	(914.3)	(374.7)	(1,787.2)
금융비용부담률[9)]	1.3	1.2	1.1	-	0.4
	(1.0)	(1.0)	(0.9)	(2.1)	(0.3)
3. 안정성 관련지표					
부채비율[10)]	128.4	121.2	114.1	-	139.8
	(85.3)	(80.2)	(77.0)	(141.6)	(105.5)
차입금의존도[11)]	31.4	29.8	28.8	-	31.3
	(24.9)	(23.7)	(22.7)	(30.0)	(22.9)
자기자본비율[12)]	43.8	45.2	46.7	-	41.7
	(54.0)	(55.5)	(56.5)	(41.4)	(48.7)

주: 1) ( ) 내는 제조업 기준
2) 일본의 2017 회계 연도는 2017.4.1 ~ 2018.3.31
3)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4)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5) (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 유형자산)×100-100
6) (영업이익/매출액)×100
7) (세전순이익/매출액)×100
8) (영업이익/이자비용)×100
9) (이자비용/매출액)×100
10) (부채/자기자본)×100
11) [(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12) (자기자본/총자본)×100

□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영역의 유사통계-「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통계청)

○ 작성 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업력별, 사업형태별 기업 구조 및 재무 현황을 파악
  *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77호)

○ 모집단
-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중에서 비영리 성격의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영리법인

○ 생산 항목
- (구조 현황) 기업규모, 산업, 종사자, 업력, 사업형태, 활동유형
- (재무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 기준 시점
- 매년 12월 31일

□ 기업경영분석과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비교

○ 작성 포괄범위에 따른 차이 발생
- 기업경영분석은 법인세 신고업체 중 ① 임업(농림어업), 수도사업(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②비영리법인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 ③ 결산일이 1.1~5.31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반면, 영리법인기업체통계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만 제외

	연도	기업경영분석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대상업체수(개)	2015	574,851	571,244
	2016	615,316	612,008
	2017	655,524	666,163

기업경영분석과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와의 비교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통계청)
활용자료	법인세 자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보험자료, 근로·일용소득지급명세서
포괄범위	법인세 납부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단, 1~5월 결산기업, 비영리법인, 임업, 수도업,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제외)	법인세 납부 대상 영리법인 (단, 비영리법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자가소비 및 국제기관 등 제외)
공표주기	매년(작성기준 익년 11월)	매년(작성기준 익년 12월)
주요지표	재무제표,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 자본, 기업규모, 업력, 종사자 등
기업분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서비스 경로 및 제공자료 유형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ecos.bok.or.kr) : 보도자료, 통계보고서, DB

○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보도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osis.kr) : 보도자료(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연동), DB

4-2. 연락처 정보

□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

○ 담당부서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 담당자 : 조사역(02-759-4270, 4251, hw.lee@bok.or.kr, cj.rhew@bok.or.kr)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통계메타DB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 설명자료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며, 제공받은 법인세 신고자료는 개별기업의 식별이 불가능함. 또한 동 과세정보는 한국은행 ECOS 내 과세정보 DB시스템을 통해서만 수집하여 처리 및 보관함

○ 일반적으로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및 보안은 한국은행법 및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자료수집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 신고자료는 개별기업을 식별할 수 없고, 기업경영분석은 업종별로 집계·가공된 통계가 발표되므로 통계작성 및 공표자료에서 개별기업 식별 가능성은 없음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일반적으로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및 보안은 한국은행법 및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 기업통계팀 통계편제 담당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과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DB 시스템을 통해서만 과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과세정보DB 관리자가 동 시스템을 통해 과세정보 이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음

6. 통계활용 실태

□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접속 조회수

통계구분	2018년중 발표일자	누적 조회수[1)]
2017년 기업경영분석	10.31일 12:00	6,548
2018.1/4분기 기업경영분석	6.14일 12:00	3,518
2018.2/4분기 기업경영분석	9.13일 12:00	2,530
2018.3/4분기 기업경영분석	12.13일 12:00	2,724

주 : 1) 2019년 5월 17일 기준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책	인원 수	담당 통계업무
팀장	1	기업경영분석 총괄
차장	1	기업경영분석 기획, 분석, 공표
과장	1	기업경영분석 기획, 분석, 공표
조사역	4	기업경영분석 편제(자료처리,이용자서비스)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 통계작성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조직 및 인력관리규정」및 동 시행세칙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며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작성, 보유하고 있는 편제 매뉴얼도 함께 인수인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련 교육과정 이수 내역(최근 3년간)

연도	교육기관	기간	과정명	참여 인원수
2016	UNSC*	2016.11.8~11	Meeting of the Wiesbaden Group	1
2018	UNSC	2018.9.24~27	Meeting of the Wiesbaden Group	1

* UN Statistical Commission

2. 사업예산

□ 연간 기업경영분석은 기초자료 검토를 위해, (분기)기업경영분석은 표본조사에 관련 예산이 소요됨

기업경영분석 편제 및 분석	용역비	—
	광고홍보비	—
	일반업무비	—
	기타(여비교통비,회의행사비 등)	—
계		464 백만원

□ 기업경영분석통계 편제와 관련한 사업예산은 최초 편성 시부터 예산절감계획을 포함하여 금통위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승인(배정)된 예산에는 절감액이 반영되어 있음

3. 자료처리 시스템

□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 시스템 전산장비

- H/W: 웹서버, WAS
- DBMS: 오라클(웹서버: Oracle 11g / WAS: Oracle 10g AS)

○ S/W : SAS프로그램

○ 관리주체: 한국은행 전산정보국/경제통계국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기업경영분석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이행

Ⅷ. 참고문헌

1. 동일통계 외국자료

□ 주요국의 기업경영분석 작성예

○ 미국(Quarterly Financial Report, U.S. Department of Commerce) : https://www.census.gov/econ/qfr/

○ 일본(法人企業統計,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pri/reference/ssc/index.htm

○ 독일(Ratios from financial statements of German enterprises, Deutsche Bundesbank): https://www.bundesbank.de/en/statistics/enterprises-and-households/corporate-financial-statements

2. 기타 문헌

□ 통계 관련문헌

○ 윤관호(2016),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별, 업종별 경영분석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http://www.kabe.or.kr/modules/doc/index.php?doc=intro

○ 구경모(2019), 「우리나라 소매업태 간의 경영성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http://www.kportea.or.kr/treatise/treatise_list.asp?pageNum=3&Req_Subject=&Req_Writer=&Req_Vol=&Req_No=&Req_Year=2019

○ 위평량(2018), 「한국 500대기업의 동태적변화 분석과 시사점」, 경제개혁연구소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326

○ 고성진·김갑수(2018), 「중견기업 R&D 현황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https://innovation.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743&artiId=SJ0000000257&sereId=SER000000001&submCnt=1

○ 배한수·조성표·김경화(2016), 「한국 제조기업 60년, 재무적 특성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경영학회 http://www.kasba.or.kr/

○ 중소기업연구원(2007), 「중소기업 경영성과 분석기반 확대·개선 방안」 https://www.kosb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jsessionid=39BC2270671BA02BF790798D262E9E1E?menuFrontNo=2&menuFrontURL=front/basicResearchDetail?dataSequence=J111023K13